창간정신
1. 영생대도의 실천
2. 영생학의 보급
3. 영생문화의 창달

승리신문

자유율법
주님을 초초로 바라보고 고도로 사모하라. 나라는 존재의식을 초초로 죽이고 짓이겨라. 형제의 죄를 내 죄로 여겨라. 인류는 한몸 누구든지 내몸처럼 여겨라.

1985년 1월 18일 창간 隔週刊 제 684 호 The Seungni Shinmun 2015년 4월 1일 수요일

지구 이외의 행성에서도 살 수 있을까

인구증가로 발생하는 식량부족, 환경오염 등 문제를 해결하려는 시도

현재 인류의 총인구는 약 70억이라고 한다. 1980년대 초 인구가 약 45억 정도였는데 불과 40년도 안 되어서 25억 가량 늘어났다. 인구가 100억에 도달하는 것은 시간문제인 것으로 보인다.

인구가 폭발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인류는 식량문제를 비롯하여 환경문제, 주거문제, 에너지문제 등 해결해야 할 과제가 늘어난다. 지구가 최대한 수용할 수 있는 인구수는 과연 얼마가 될까?

지구가 포화상태에 이르렀다고 보고 외계에 눈을 돌리는 과학자들이 많다. 태양계를 돌고 있는 행성에서 자원을 채취하고, 식량을 재배하여 지구에 공급하고, 더 나아가 아예 인류를 이주시켜서 살 수 있게 하려는 계획은 꿈이 아니라 현실이 될 수 있다.

화성이주계획을 발표한 마스원의 화성거주 조감도

화성 이주 계획

네덜란드의 마스원(MarsOne)은 2013년 1월 화성 이주 계획을 발표했다. 마스원은 2018년 무인 발사를 하고 2024년에 승무원을 태우고 화성으로 출발할 계획인데 그 지원자를 모집하니 20만 명이나 되었다고 하며, 그 중 100 명을 뽑았다고 한다. 이는 화성으로 왕복 여행이 아니라 화성에서 아주 거주하게 될 새로운 프로젝트인데 과연 마스원 프로젝트가 인류가 야심차게 내딛는 새로운 도전으로서 성공할 것인지는 현재 불분명하다. MIT 연구팀은 이 프로젝트가 식량 부족, 질식 사고나 부족한 예산, 로켓 위험성 등으로 실패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을 내놓은 바 있지만 마스원 측은 이 분석이 잘못된 데이터에 의한 것이라고 반박하고 있다(전자신문, 2015. 2.24 참고).

과연 인류는 지구를 떠나 살 수 있을까?

토성 위성에서 온천 발견, 외계 생명체 존재 가능(?)

한편 인류가 외계에 눈을 돌리는 데에는 외계에 생명체가 존재하는가를 알기 위한 측면도 있다. 심심찮게 등장하는 뉴스에는 지구와 환경이 유사한 행성을 발견했다는 것이다. 이뿐만 아니라 UFO와 외계인에 대한 뉴스도 끊이지 않는다.

토성 위성에서 온천이 발견됐다는 뉴스가 최근에 나왔다. 뉴스를 그대로 옮겨본다. "14일 영국 과학학술지 네이처에 따르면 토성의 얼음 위성 엔켈라두스 해저에서 온천이 탐지됐다. 네이처는 이곳이 미생물체의 서식 환경일 가능성이 크다는 내용의 논문을 지난11일 발표했다. 지구 이외의 행성에서 온천이 발견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토성 위성에서 발견된 온천은 2000년대 초 대서양 심해에서 발견된 해저 온천과 비슷한 모습이다. '잃어버린 도시'란 별명이 붙은 대서양 해저 온천에서는 박테리아와 관벌레, 조개 등 다양한 생명체가 발견됐다. 이에 따라 외계 생명체 존재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인터넷신문 Moneyweek, 2015. 3.18)"

과연 외계생명체가 있을까?

지구 이외의 행성에서도 살 수 있으려면

마스원 프로젝트에 대해서 여러 가지 기술적 문제를 들어 MIT 연구팀은 실패할 확률이 높다고 말했다. 필자는 이러한 기술적 문제에 대해서 언급할 위치에 있지 않다. 기술적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었다고 가정해보자. 즉 산소를 충분히 만들 수 있고, 식량을 재배하여 섭취할 수 있으며, 물도 마실 수 있다면 인류의 화성 이주는 이론적으로 가능할 수는 있겠다.

하지만 영생학적인 관점에서는 인류가 이 지구에 정착하게 된 것은 우연이 아니라고 본다. 영원 전부터 존재하던 생명의 신과 사망의 신이 서로 싸우다가 사망의 신이 이겨서 생명의 신을 포로로 사로잡고 있는 것이 만물의 형태라고 말한다. 사람 또한 사망의 신에게 포로로 사로잡혀 있는 생명의 신이라는 것이다. 지배적인 위치에 있는 생명의 영은 오직 사람에게만 있고, 나머지 만물들은 인간에게 종속적인 상태라는 것이다. 즉 사람이 생명의 근원이다.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영이 근본적으로 있기 때문에 사람으로부터 생명의 영이 방출된다. 사람으로부터 방출되는 빛을 오라라고 하는데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이다. 사람이 존재하지 않는 별나라 달나라에는 풀이나 나무와 같은 생명체가 존재하지 않는 것은 사람이 살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풀과 나무와 물고기는 사람으로부터 방출된 생명의 영을 받아야 먹고 살 수 있는 존재이므로 사람에게 종속된 간접적인 생명체이다.

결론적으로 말한다면 영생학에서는 지구 이외에 다른 외계에 생명체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며, 기술적 난관이 모두 해결되었다는 가정 아래 화성 이주 계획이 성공하려면 소수의 인류의 이주만으로는 어렵고 사망의 기운을 상쇄할 수 있을 정도의 인류가 이주해야 가능할 것으로 본다.*

김중천 기자

금주의 말씀 요절

전 세계를 향하여 선포한다(57)

"악조건과 호조건"

3분의 2는 죽고 3분의 1은 산다고 하는 것은 호(好)의 악조건(惡條件)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것은 아담과 해와를 찾은 다음에 이긴자가 마귀와 더불어 싸우는 가운데 먼저 온 사람들이 불순종할 때에 일어나는 조건이다. 따르는 자들이 100% 순종할 때에는 온 세상 만민들이 모두 구원을 얻게 되어 있는 것이다.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수백만 명의 구세주가 된다는 것을 일찍이 말씀한 바 있는 것이다.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자유율법을 어기고 불순종하고 떨어질 때에는 수백만 명이 같이 떨어지는 조건이 되는 것이다.

이 역사에 여러분이 순종을 잘해주면 절대다수가 구원을 얻게 되거니와 여러분들이 엉뚱한 짓을 하고 또 다른 모임을 만들고 대항하는 행동을 하게 된다면 수많은 사람이 지옥에 가야만 하는 호(好)의 악조건(惡條件)이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철천지원수도 이 안에 있고 하나님의 뜻을 이룰 자도 이 안에 있는 것이다.*

이 또한 지나가리니…

박인숙

1. 하루 하루 살아가는 동안에 마주하는 고통과 시련
때로는 주저앉고 포기하고 싶을 때에
나의 맘에 들려오는 말이 있어
이 또한 지나가리니 이 또한 지나가리니 이또한 지나가리니
고통이라 불려지는 것도 시련이라 불려지는 것도
흐르는 세월 속에서 쌓이는 삶의 흔적일뿐
이또한지나가리니이또한지나가리니
영원한 것은 오직 주님의 진리말씀

끝없는 폭풍속을 성난 파도 바다 위를 지날 때도
나 두렵지 않음은
이또한지나가리니이또한지나가리니

2 하루하루 살아가는 동안에 마주하는 기쁨과 행복
내가 해낸 것이라 우쭐하여 질 때에
니를 일깨워주는 말이 있어
이또한지나가리니이또한지나가리니
이 또한 지나가리니
기쁨이라 불려지는 것도
행복이라 불려지는 것도
나의마음속에서일어나는감정의물결
이또한지나가리니이또한지나가리니
영원한 것은 주님주시는 기쁨

끝없는 폭풍속을 성난 파도
바다 위를 지날 때도
나 두렵지 않음은
이또한지나가리니이또한지나가리니

논 단

불교의 방생행위는 무엇을 상징할까?

불교계의 행사 중에 방생법회(放生法會)가 있다. 방생(放生)은 잡혀 죽게 된 생물을 놓아 살려 줌(불교용어 사전, 박영의 편저, 도서출판 좋은 인연), 잡은 물고기·새·짐승 등의 생물을 놓아 주어 자유롭게 살 수 있게 해주는 것(백과사전, 다음(daum) 인터넷)이라고 정의되어 있다. 그런데 둘 다 '잡힌 생물을 해방시키는 행위' 정도로 정의되어 있지 그러한 행위 자체가 그 행위자에게 무엇을 알려주기 위한 것인지를 언급하지 않음으로써 왜 방생을 하는 것인지 그 의미가 불명확하게 정의되어 있다.

성경에도 이러한 '갇힌 생명을 해방시킴'을 의미하는 내용이 있다. 즉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요한복음8:32)"라는 구절인데 여기서 '너희'는 사람을 말하는 것이고, '자유케 하리라'라는 구절에는 '자유롭지 못한 상태에 있다' 즉 갇혀 있다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으며, 갇혀 있다는 것은 어떤 것에 구속되어 있다는 것이니 '구속하고 있는 그 무엇'이 없어져야만 자유롭게 될 것이다.

또한 진리는 참된 이치를 뜻한다. 참된 이치는 불변성(不變性)을 그 속성으로 갖는다. 즉 진리는 변치 않는 것이어야 한다. 그래서 사람이 영생을 누리지 못하고 죽는 것은 '진리'가 아니다.

한편 사람을 죽게 하는 주체는 사망의 신이다. 다시 말하자면 사람은 사망의 신의 구속 아래 있다. 따라서 사람을 속박하는 사망의 신이 없어지지 않고서는 자유를 얻을 수 없다.

그렇다면 불교인들은 왜 방생을 하는가에 대한 답이 도출된다. 즉 방생은 구속되어 죽어 온 사람이 그 구속에서 해방되어 죽음이 없어진 상태의 존재 즉 영생체가 되어야 함을 알리고자 함임을 감히 말할 수 있으며 불경에서는 "한 사람이 부처를 이룰 때에 만나는 사람마다 다 부처를 이룬다(열반경 29권289페이지)"고 하여 이를 강력하게 뒷받침하고 있다.

그러면 최초의 방생자를 누구라 하여야 할까? '석가모니 선생'도 자신도 미륵여래를 만나야 부처를 이룬다(열반경 25권 보살품 10-5)고 하였으니 창세 이후 최초의 성불자는 바로 〈여래〉 즉 〈미륵불〉임이 틀림없다.

이와 같이 방생(放生)은 자신 속의 마귀의 영옥(靈獄)에 갇혀 있는 생명(불성)을 해방시켜야 성불(成佛)함을 상징하고 있건만 모르고 흉내만 내고 있는 것이다. 더욱 중요한 것은 방생시키는 방법을 알아야 하는데 불경이나 성경이나 이 세상 어느 종교 경전에도 그것이 안내되어 있지 않다. 그런데 최초의 방생자이신 〈미륵부처〉께서 그 방법을 이곳 승리제단에서 매일 자세하게 강론하고 계신다. 그 방법으로 성불(미륵부처)하셨기에 잘 아시는 것이다.*

정수철 승사 / 본부제단

누구든지 내 몸처럼

승리제단에서는 諸宗敎의 경전에 예언되어 있는
제종교

三神一體 一人出 된 眞人의 증표인 甘露가 항상 내립니다
삼신일체 일인출 진인 감로

본부제단에서 내린 이슬성신

본부제단 2부예배에서 내린 이슬성신

본부제단 2부예배에서 내린 이슬성신

이슬성신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신(호세아 14:5)이라 빛의 형상(요한 1장)으로 나타난다.
구세주를 진심으로 따르는 승리제단 신도들이 있는 곳에는 언제나 구세주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기 때문에 이슬성신이 카메라에 잡힌다.
영안이 열린 사람은 이슬성신을 볼 수 있지만 죄인의 눈에는 안 보인다. 대신 죄가 없는 카메라 렌즈에는 찍히는 것이다.

본지 지난호는 승리제단 홈페이지 http://www.victor.or.kr 에서 볼 수 있습니다.